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2 장



프랑스 아비뇽 시, ~ 1342년

때는 14세기 유럽이었고, 아비뇽은 바로 그 중심지였다.

기독교 제국 시대, 론 강변에 자리 잡은 아비뇽은 서방의 바빌론이라 불렸습니다. 상인과 점쟁이, 술꾼과 장인, 군인과 사절, 요부, 도둑 등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북적이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외부 침략을 막으려 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 하수 처리가 매우 어려웠고, 악취가 마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장막처럼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바다 위로 솟아오른 교황궁은 땅을 압도하는 위용을 자랑했다. 로마 제국이 버린 바위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교황청의 초석이자 교황의 옥좌 역할을 했다. 거대한 고딕 양식의 성은 당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였다. 마치 용처럼 거대한 요새였던 이 건물은 두께가 3.6미터에 달하는 견고한 성벽과 흉벽, 망루, 화살 구멍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 건물은 마치 두 개의 궁전처럼 펼쳐져 있었고, 쌍둥이 사각형 안뜰을 자랑했다. 양쪽 날개에는 거대한 홀들이 있었는데, 그중 더 크고 중요한 홀들은 종교 회의장이었다.

연회장과 보물창고가 있었다. 그 지하에는 교황령 포도밭에서 수확한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와인이 거대한 나무통에 담겨 숙성되는 거대한 지하실이 있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하루에 수만 개의 빵을 구워내며 아비뇽의 바빌론 보물 창고를 채우는 지옥 같은 화덕이 있었다. 교황궁은 중세 시대의 괴물을 웅장한 규모로 확대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 거대한 건축물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궁궐 안에는 부패, 부, 뿌리 깊은 악행, 권력, 그리고 막강한 권위의 꿈틀거리는 내장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수축하는 듯했다. 성의 복도는 언제나 추기경과 교황청 관리들, 교황 경호원과 시종들, 의원들과 법률가들, 겸손한 눈빛의 첩들, 기사들과 그들의 영주들, 방문하는 고위 인사들과 그들의 호위병들, 그리고 교황의 저명한 친척들과 개인 접대원들로 북적였다.

베네딕트 12세 교황 재위 기간 동안 추기경단에는 24명의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중 블라시 추기경은 불같은 성격으로, 대부분의 추기경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젊은 추기경이었던 장 프랑수아 블라시는 건장한 체격에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섬뜩할 정도로 눈에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맑은 갈색이었지만, 다른 한쪽 눈은 마치 악마의 시선처럼 흐릿하고 뿌옇게 빛났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극소수의 추기경만이 그와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라시에게는 그 몇 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교황청 내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추기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황궁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고위 추기경들이었습니다.

아비뇽에서는 지위가 높은 추기경들이 궁전의 여러 별관, 홀, 예배당,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블라시는 오랫동안 대형 지하 저장고의 관리자였습니다. 이 넓은 저장고는 1337년에 건설된 지하 통로로, 위층에 있는 콘클라베 홀이 있는 별관 전체 길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 저장고로, 유럽 최고의 와인들을 숙성시키는 수백 개의 숙성된 술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블라시는 포도 수확부터 술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와인의 보관과 안전 관리까지 생산의 거의 모든 과정을 책임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졌던 이 와이너리는 교황청 연간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관해서라면, 대부분은 블라시를 '와인의 추기경'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모든 와인 감식가들은 블라시와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곧 거대한 와인 저장고와 친분을 쌓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궁궐 식료품 저장실의 관리자이자 마르고 강인한 체격의 라울린 투생 추기경은... 보테유레리(병 창고)와 매우 뚱뚱하지만 섬세한 릴로 줄린 추기경.

주방과 연회장의 책임자였던 두 사람은 스스로를 미식가라고 여겼고, 각자 와인 추기경과의 친분을 쌓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블라시는 이 두 사람이 왜 자신에게 구애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적어도 분명한 동료애의 표현이다.

훨씬 규모가 큰 추기경단과는 달리, 외경 공의회는 단 세 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참 공의위원 하두르 사비에르, 가장 나이가 많고 허약한 아비트 바실리스트, 그리고 가장 젊고 최근에 임명된 에드마르 린이었습니다.

사비에르 추기경의 임기는 그의 알몸에 참수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끝났습니다. 한 농부 소년이 아비뇽 서쪽 도로변 덩굴 속에서 그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주변 덩굴에는 그의 경호원들의 유해도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시신 역시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살해 사건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살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사망했습니다. 몇몇 추기경들은 베네딕토 16세가 독살당했으며, 일련의 살인 사건들이 더 큰 정치적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추측은 결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블라시는 교황청 와인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으며, 게다가 폭군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독살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감히 그에게 맞설 용기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의 국장 후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프랑스인들이 주도하는 콘클라베는 서둘러 또 다른 프랑스인인 피에르 로저 드 보포르를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아비뇽 교황직 계승 서열 5위였습니다. 드 보פור는 클레멘트 6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출식에는 추기경단과 평의회 구성원, 사무 총장, 총대리인 겸 부교구장, 나폴리 왕국의 주요 교황청 관리들, 저명한 주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측근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야 했다.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의 사절은 행사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하여 불참했다.

이 선거의 권한은 표면적으로는 추기경단에 있었다. 그러나 교황의 설득력의 진정한 힘은 소수, 즉 외경 공의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수세기에 걸쳐 추기경단은 교회의 선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교황을 섬기고 있다.

의회 기관이 전체 조직에 봉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경 공의회는 규모가 작고, 베일에 싸여 있으며,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교황청 기관이었지만, 그 권위는 추기경단과 쉽게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받지 않았으며, 오직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표자, 즉 교황에게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외경은 상급 평의회와 하급 평의회라는 두 개의 뚜렷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급 평의회는 교황과 그가 임명한 추기경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하급 평의회와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을 감독했습니다. 창설 이후 이 평의회는 60명에서 66명 사이로 변동되었으며, 각 구성원은 상급 평의회에서 임명되었습니다.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종신직이었으며, 기존 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만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상급 평의회는 초대 추기경 세 명 중 바실리스테와 레앙 두 명이 아비뇽에 거주했습니다.

샤토 루즈라는 별장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급 평의회 구성원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내륙의 두 수도원에 고르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언덕에 위치한 가르디앙 수도원(Abbaye des Gardiens)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외딴 산악 지대에 있는 칸첼로 수도원(Monastero del Cancellero)이었습니다.

하급 공의회 소속 가르디앙 수도원은 상주 수도원장 보니히의 지휘를 받았고, 이탈리아의 칸첼로 수도원은 상주 수도원장 도밍구스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하급 공의회 수도원장들은 모두 상급 공의회 추기경들에게만 보고했고, 추기경들은 다시 교황에게만 비밀리에 보고했습니다. 이 고립된 수도원들은 스스로를 베네딕토회 소속이라고 여겼지만, 베네딕토회 수도 규칙에 따라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네딕토회, 프란치스코회, 시토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이 수도원들은

수도원 규칙에서 분리되어 외경 공의회와 독립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의회와 그 산하의 두 수도원, 그리고 그 존경받는 구성원들은

하인들의 부하들인 루시파엘은 겉으로는 교황청 비밀 창고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지키는 일종의 '성령'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루시파엘이 숨길 수 있는 비밀은 거의 없었으며, 특히 교황청 공의회는 더욱 그러했다.

루시파엘이 죽음의 숨결로 아시아를 황폐화시키는 동안, 그녀는 유럽에서도 두 나라를 속이는 데 여념이 없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혼인을 통해 왕실 혈통을 이어받았다. 간단히 말해, 한 왕이 죽자 영국은 프랑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었다. 어쨌든 얽히고 설킨 두 왕국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종말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로써 백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백년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이자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로 기록될 크레시 전투는 프랑스 땅에서 벌어졌으며, 영원히 피의 전투로 불리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더운 8월 오후에 벌어진 참상을 목격했다.

크레시 앙 폰티유 ~ 프랑스 북부 ~ 1346년 8월

폭풍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천둥소리가 서쪽으로 울려 퍼졌고, 번개가 쳤다.

저 멀리 언덕으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빛나는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바람에 휘어진 참나무 가지 사이에 앉아 흩어진 잎사귀들을 뒤흔들었다. 차갑고 기계적인 검은 눈동자가 부풀었다 오므라들기를 반복했는데, 마치 어떤 기계가 칠흑 같은 눈을 조종하는 듯했다. 까마귀는 고개를 흔들며 멀어져 가는 먹구름을 향해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다.

참나무 가지 아래에서는 프랑스 군인들이 진흙탕이 된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행군하고 있었다.

대부분 도끼와 쇠스랑을 휘두르는 데 더 익숙한 농민들로 구성된 프랑스인들은 북부 프랑스의 질척한 언덕을 지나 전쟁터로 행군하고 있었다. 새로 즉위한 필립 6세는 영국의 '개' 에드워드 3세에게 프랑스는 영국이나 그 누구 와도 왕위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필립은 프랑스가 주권 국가이며, 왕위는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필립의 오만한 주장에 격노한 에드워드는 그를 폐위시키기로 결심하고 프랑스 전역을 휩쓸며 마을들을 불태웠다. 그는 필립을 몰락 시키기에 충분한 피해를 입히겠다는 각오였다.

필립 2세는 에드워드 1세의 대담한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귀족들을 소집하여 침략군에 맞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필립의 소집 명령이 너무나 거세서, 크레시앙퐁티 외 평원 위의 거대한 프랑스군 과 마주한 에드워드는 그와 교전하기를 거부하고 북쪽 칼레 방향으로 도망쳤다. 프랑스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빠른 승리를 기대했다.

필립의 군대는 여러 영주 들의 군대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였는데, 비록 대부분 농민 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수는 3만 5천 명이 넘었고 영국군보다 많았습니다.

3대 1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귀족과 기사들은 수많은 농부와 상인들과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귀족들은 멋진 말을 타고 깃발을 휘날리며 두꺼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귀족다운 위엄 있는 태도와 노련한 병사들 특유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긴 검과 철퇴, 방패가 갑옷을 입은 말들에 부딪히며 찢랑거렸고, 장창병들이 질서정연한 보병 대열 사이로 흔들거렸다. 석궁 수레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육중하게 지나갔다. 수많은 안장이 삐걱거렸고, 수많은 말들이 날갯짓을 하며 발을 구르며 나아갔다.

병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외침으로 명령을 전달받았고, 그 소리는 병사들 사이사이로 전달되었다.

그들이 뒤에 남겨두고 온 들판과 수확물들. 축축한 8월 공기 속에서 전쟁 소리는 묵묵히 운명을 향해 행진하는 병사들을 위한 진혼곡처럼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성급하고 결정적인 승리와 많은 영국군 포로를 거머쥘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전쟁 전날 밤 겁먹은 돼지처럼 불안감이 가득했다.

학살. 공유된 심리 상태는 뚜렷한 수준의 불안감을 드러냈고, 구체적인 예측보다는 막연한 예감에 더 가까웠다. 뼈 속 깊이 스며든 희미하지만 완전히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자각, 임박한 파멸의 느낌이었다.

심지어 전투에 나선 말들조차 그 핵심을 간파했지만, 전장 위 울퉁불퉁한 떡갈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던 빛나는 검은 까마귀가 그 의미를 가장 잘 파악했다. 그것은 바로 악마 그 자체의 보이지 않는 현존이었고, 그녀와 함께 또 다른 천사, 죽음이 있었다.

병사들의 행렬 한가운데에서, 중무장한 두 기사가 갑옷을 입은 말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갔다. 그들의 흉갑 위에는 동일한 문양이 수놓아진 소매 없는 조끼가 걸쳐져 있었다. 같은 문양이 안장 덮개와 방패에도 새겨져 있었다. 이 기사들은 라온의 아멜레트 영주의 깃발 아래 말을 타고 있었다. 그들은 형제였다.

6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난 두 사람은 블라시 가문의 문장과 명망 있는 성을 지니고 있다. 장자크와 장르네는 블라시 삼형제 중 막내였고, 맏형은 장프랑수아였다.

제멋대로인 장자크와는 달리, 장르네는 아내 알세 블라시, 그리고 외아들 미셸 블라시와 함께 랭스 시 북쪽 외곽에 위치한 명문 블라시 가문의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장프랑수아는 저택 외에도 아비뇰에 있는 교황 소유의 대저택인 샤토 루즈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여러 교황 고위 관리들과 함께 2층짜리 샤토를 공유했으며, 그들의 호화로운 거처는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크는 사과를 마지막 과육을 한 입 베어 물고 동생의 헬멧에 던졌다. 사과 심이 르네가 치켜든 바이저에 부딪혀 광 달렸다. 르네는 바이저를 획 들어 올리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었다. 자크는 웃으며 동생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더 잘 보기 위해 말에 몸을 기울였다.

“자, 르네.” 젊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투 전에 웃음은 사기를 북돋아 주는 법이지. 난 에드워드 왕이 아니란다, 꼬맹아!” 자크는 옆구리에 걸친 주머니에서 싱싱한 사과 하나를 꺼냈다.

르네는 차갑게 대답했다. “병사들은 돌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군으로 지쳐 있습니다.”

“영국 놈들을 바다로 몰아넣겠다!” 자크는 사과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에드워드의 입에 사과를 쑤셔 넣고 바다 건너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르네, 자네의 착한 형이니만큼 영국 기사 한 명을 사로잡아 오겠네.” 그는 껄껄 웃으며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르네가 말했다.

“그들은 어린 소녀처럼 지쳐 있을 거야.” 그의 형이 반박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전쟁을 겪었잖아.” 그들은 우리의 엄청난 수를 보는 순간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이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에드워드와 흑태자 모두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군요.”

"그들은 지쳤어." 젊은이가 주장했다. "그들은 항복할 거야. 바보는 바로 너야, 르네. 전투가 끝나면, 그 바보에게 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테지. 만약 전투가 있다면 말이야."

"자크, 자네는 명령을 받았네. 나처럼 그 명령을 따라야 하네. 폐하의 원수 께서 병사들이 하루 행군으로 지친 기색이 가라앉을 때까지 모든 깃발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네."

“주변을 둘러봐, 르네. 저들의 눈을 봐, 그들의 기운을! 그들은 쉬지 않을 거야. 피가 끓어오르고 있어.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공격할 거야.” 자크가 대답했다.

"이 병사들 중 상당수는 우리처럼 전투의 쓴맛을 본 적이 없어." 르네가 상기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아멜레 경의 명령에 묶여 있어. 그의 깃발은 폐하의 것이지." 르네는 쏘아붙였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에드워드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돼."

두 남자는 느리게 움직이는 군대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행렬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끝없이 가로지르는 듯했다. 자크는 혐오감에 일그러진 얼굴로 르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방패도 갑옷도 없는 영국군보다 목숨을 걸었다면, 나도 기꺼이 말을 타고 그들을 지키겠다. 프랑스에 충성하는 기사 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를 섬긴다. 이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다. 나는 그들을 지켜낼 것이다!"

"형제여, 당신은 맹세를 어기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블라시 가문의 모든 명예를 영원히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은 좋은 나쁜 모든 블라시 가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크는 르네의 말을 못 들은 듯 앞만 응시했다.

"젠장, 자크." 르네는 으르렁거리며 얼굴 보호대를 휘 내렸다.

마침내 자크는 "당신도 프랑스와 함께 말을 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르네는 투구의 바이저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자크, 자네는 완전히 균형 감각을 잃었군."

자크는 얼굴을 찡그리며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러시겠어요?"

"당신은 기사가 아니야. 갑옷 입은 바보일 뿐이지."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장 프랑수아에게 내가 그의 어리석은 형 곁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 하지 않겠다."

"맞아요." 자크가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죠. 십자가는 우리 둘 다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둘 다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군." 르네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크를 돌아보며 꾸짖었다. "네가 이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군. 넌 그걸 즐기는 거지?" 르네의 찌푸린 얼굴이 풀리고 씩씩한 미소가 번졌다. "프랑스의 부흥과 함께 가야만 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자."

자크는 껄껄 웃으며 동생에게 몸을 기울였다. "주변을 둘러봐. 르네, 너처럼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저놈들은 르프티를 바다에 던져버릴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승리는 이미 우리 거야. 머지않아 에드워드의 목을 베고 왕좌까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우리의 승리를 보여줘."

추기경 형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르네는 사과를 던져버리고 투구를 벗은 후, 갑옷 아래에서 가느다란 금 사슬을 꺼냈다. 그 사슬에는 그의 형 장 프랑수아 블라시의 것이었던 보석 박힌 십자가가 상당한 무게로 걸려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고(故) 베네딕트 12세 교황께서 직접 축복하신 것이었다. 프랑수아는 르네와 자크가 모든 전투에서 이 십자가를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르네가 블라시 가문의 십자가를 뭇 차례였다. 이것은 르네가 형을 따라야 한다고 느낀 이유 중 하나였다.

자크가 돌격한다면, 그는 동생을 홀로, 십자가도 없이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어리석게도 멍친 프랑수아군이라 할지라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동포와 동생에게 비록 방식은 달랐지만 똑같이 헌신적이었고, 둘 다를 지키고 둘 다를 기릴 것이다. 르네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말에서 내려 십자가를 자크에게 건네주었다. 자크는 차가운 금속에 입맞추고 경건하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천둥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다. 자크는 웃으며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다. 그들 위, 키 큰 참나무 가지에는 빛나는 까마귀 한 마리가 깃털을 파닥이며 날아올랐다. 까마귀는 햇대에서 뛰어내려 북서쪽 지평선, 영국군을 향해 날아갔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과 성 드니의 이름으로.” 자크는 냉혹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르네는 말에 다시 올라타 똑같이 경건한 인사를 되풀이했다. 그는 십자가를 가슴에 다시 달고 투구를 썼다. 기마병들이 군대의 대열을 따라 질주하며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외쳤다. "무기를!" 부대가 돌진해 나갔다.

필립의 군대가 에드워드를 따라잡았고, 이제 에드워드는 돌아서서 싸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영국 왕은 크레시 마을 근처의 넓은 언덕에 기병과 창병을 배치하고, 앞뒤로 궁수들을, 후방에는 기병들을 말 옆에 대기시켰다. 에드워드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풍차 안에서 지휘를 맡았다.

짧은 순간, 흥분한 까마귀는 북동쪽으로 쏘살같이 날아올라 거칠게 경작된 땅을 가로지르더니, 드문드문 솟은 능선에 가려진 외딴 덩굴 속으로 급강하했다. 새의 빛나는 모습은 엉덩퀴와 주목 사이에서 강렬하게 드러났고, 거친 울음 소리는 바람을 피해 소변을 보고 있던 젊은 영국 궁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불길한 날에 불길한 징조로군." 궁수는 까마귀를 응시하며 속삭였다. 마치 새가 그를, 그의 속마음을,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마치 머리 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려는 듯. 그는 혈떡이며 신음하다가 땅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새는...

그 새는 비명을 지르며 마친 듯이 날갯짓하다가 결국 덤불 속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고, 깃털은 경련을 일으켰다.

죽은 궁수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는 땅에서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눈동자 흰자위는 마치 까마귀 깃털처럼 검고 반짝거렸다. 그는 나무줄기에 기대어 놓인 장궁을 집어 들고, 화살통을 등에 메고 숲을 나섰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가득 찬 기분이었다. 방광은 비웠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벅차 올랐다. 뛰지 않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검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 거의 천 명에 달하는 궁수들이 500명의 보병을 포위하고 있는 진형을 발견했다. 그 진형은 동쪽의 얇은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에는

그들과 서쪽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완벽한 정사각형 두 개 진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궁수는 그는 병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자크 블라시의 예상대로 프랑스군은 지휘관들이 제지하기도 전에 무모하게 전장으로 돌격했다. 계곡에서는 무장병, 창병, 제노바 석궁병, 그리고 말을 탄 프랑스 기사들이 뒤엉켜 영국군이 점령한 능선을 향해 돌진했다. 난투극에는 질서가 없었고, 병사들은 피에 굶주려 서로를 땅에 쓰러뜨렸으며, 심지어는 누군가를 창에 꿰뚫기까지 했다.

스스로의 서투른 손으로 칼에 찔려 죽었다.

언덕의 영국 쪽에서는, 영혼이 텅 빈 병사들이 활을 높이 들고 당겨 든 궁수들의 긴 줄 사이를 지나갔다.

"움직이지 마! 멈춰!" 권위 있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살아남은 궁수들은 그의 검은 눈동자를 보고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뒤로 물러났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비켜! 저 녀석은 악마야!"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돌아 능선을 따라 걸어 내려가며 영국군과 그들의 진지를 뒤로 남겨두었다.

“궁수! 제자리로 돌아가라!” 대열 뒤쪽에서 우렁찬 명령이 들려왔다. 클리포드 경의 목소리였는데, 명령의 권위가 확고했지만 궁수는 여전히 느리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언덕 아래로 향했다. 영국군 진형 뒤로는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이 개고 오후의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영국군 등 뒤로 태양이 비추자, 다가오는 프랑스군은 앞이 보이지 않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워릭 백작과 옥스퍼드 백작은 자신의 궁수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클리포드 경, 궁수를 돌려보내십시오! 영주님들, 병사들을 과녁에 고정시키십시오!”

악마 궁수는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꺼내 걸음을 멈추지 않고 활시위에 깊숙이 당겼다. 그의 검은 눈은 계곡 저편의 두 개의 밝은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궁수! 돌아오거나 뒤에서 공격받을 것이다!” 클리포드 경이 명령했다. 궁수는 능선을 따라 계속 내려 갔고, 그의 검은 형체는 혼란스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 섬뜩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프랑스군이 진격해 온다. 클리포드는 말을 앞으로 몰았고, 그의 기수 또한 뒤따랐다. 그는 궁수 중 한 명 옆에 멈춰 서서,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전사를 떨어뜨리라고 으르렁거리며 명령했다.

“뒤에서 공격하시는 겁니까, 나리?” 궁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 나와서 저 남자를 쏘라! 지금 당장 해, 궁수!” 클리포드는 물러서는 인물을 향해 격렬하게 손짓 하며 으르렁거렸다. “정말입니다, 각하.” 궁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시야가 트인 곳으로 이동했다. 화살을 당겨 바람 을 살피고는 뾰족한 화살을 능선 아래로 쏘았다. 화살은 곧장 빠르게 날아가 냉혹한 남자의 등을 꿰뚫 고 가슴 한가운데로 박혔다. 화살에 꿰뚫린 궁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능선을 향해 돌아섰다. 영국 병사들 은 죽은 남자가 자신들을 향해 돌아서는 모습을 흐릿하게만 보았다. 마치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듯 했다. 아무도 화살이 활에서 날아가 능선을 넘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 화살이 클리포드 경의 젊은 궁수의 눈을 꿰뚫는 것을 보았다. 궁수가 땅에 쓰러지 고 나서야 그들은 검은 깃털이 달린 화살이 그의 머리를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악마 의 궁수는 몸을 돌려 프랑스군의 맹렬한 돌격 속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를 놔둬!" 클리포드는 좀비처럼 걸터다니는 남자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궁수들, 과녁을 찾아 라! 내 신호에 맞춰 준비해!" 하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태연하게 다가오는 프랑스 적군을 향해 걸어가는 그 존재에 게 쏠려 있었다. 그 존재는 몸통을 관통한 화살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다.

초기 영국 대포의 굉음이 들판에 울려 퍼졌고, 첫 화살 세례가 시작되었다. 돌격하는 프랑스군 사이로 화살이 쏟아졌다. 병사들과 말들이 화살 세례에 쓰러지며 프랑스군은 공 포에 휩싸였다. 화살대에는 전쟁에 새롭게 등장한 송곳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송곳 화살촉은 길고 무거운 철 제 끝 으로 갑옷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영국군의 장궁은 밀도가 높은 주목나무로 만들어졌고, 100파운드(약 45kg) 이상의 장력이 필요한 탄력 있는 삼베 활시위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 활 은 이 파괴적인 신형 화살을 엄청난 위력으로 쏘아 올렸다. 프랑스 기사들의 금속 갑옷은 그들을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부하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쓰러지는 것을 본 필립은 그들에게 되돌아가 재정비하라 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필립을 지나쳐 미친 듯이 계곡을 가로질러 달려 갔다. 제노바의 석궁병들은 쏟아지는 장궁 화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영국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은 활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를 본 필립의 동생인 알랑 송 백작은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날, 침략해 온 영국군보다 프랑스 동료들의 손에 전사한 제노바인이 더 많았다.

군대.

영혼 없는 궁수는 격동하는 전장 위를 홀로 걸었다. 병사들과 말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 검은 눈동자가 불러일으키는 본능적인 공포감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화살이 자신을 꿰뚫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는 궁수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 그는 등에 멘 화살통에서 또 다른 화살을 꺼내 시위를 걸고 한순간에 쏘았다. 약 300야드 떨어진 들판에서 화살은 장 자크 블라시의 말 앞다리 사이 땅에 쿵 하고 박혔다. 제노바산 석궁 화살 두 발이 죽은 궁수의 갈비뼈에 박혔고, 세 번째 화살은 그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그러나 그의 검은 시선은 결코 목표물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화살들은 그를 멈추게 하거나 그의 손놀림을 늦추지도 못했다. 첫 번째 화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화살이 활에서 발사되었다. 이번에는 빛나가지 않았다. 화살은 자크의 갑옷 깃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 그의 왼쪽 폐를 꿰뚫었다. 그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또 다른 화살이 하늘에서 번쩍였다. 그의 옆에서 르네는 자신의 말이 쓰러지는 비참한 소리를 들었다. 검은 깃털이 달린 화살 하나가 짐승의 눈 사이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죽은 궁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가 또 다른 화살을 쏘려는 순간, 석궁 화살이 그의 목을 꿰뚫었고, 그는 마침내 땅에 쓰러졌다. 르네는 벌떡 일어나 형에게 달려갔다. 병사들이 미친 듯이 돌격하며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르네는 자크의 얼굴 보호대를 들어 올리고, 그의 머리를 땅에서 들어 올려 팔꿈치로 감쌌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자크가 이 계곡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살아 있는.

“안 돼, 르네.” 자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나는 명예롭게 전사했어.” 그는 입안에 꿰어오르는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한 번 더 품에 안고 싶어.”

르네는 투구를 벗어던지고 턱을 치켜든 다음, 목걸이 줄을 잡아당겨 갑옷에서 십자가를 떨어뜨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십자가를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가져다 댔다.

형의 입술. 자크는 거기에 입맞추고 미소를 지었다.

"르네, 에드워드를 처치할 때 위대한 장 프랑수아 드 프랑스 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해줘."

그는 속삭였다. "맹세해."

"자크,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나 또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르네는 웃음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형제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농담이었는데, '지나치게 진지한' 그들을 놀리던 어리석은 별명이었다.

형: 프랑수아 드 프랑스. 르네가 십자가를 갑옷 아래로 다시 밀어 넣자, 그의 형은 한숨을 쉬며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계곡 건너편에서 악마 궁수가 움직였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허벅지에 박혀 있던 두꺼운 석궁대가 그가 구르며 무릎을 꿇고 일어서자 끘찍한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빗발치는 화살이 그의 가벼운 갑옷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의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는 화살을 시위에 걸고 쏘았다. 르네는 슬픔과 저항이 뒤섞인 울부짖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날개를 단 죽음이 그에게 날아오는 순간이었다. 지옥의 화살은 저주받은 영혼처럼 땅을 향해 곤두박질쳤다. 비명을 지르는 르네의 입천장을 꿰뚫고 뇌를 관통하며 두개골을 갈라놓았다. 그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일그러진 그의 몸은 죽은 형의 몸 위로 쓰러졌다. 크게 벌어진 그의 눈은 저주받은 궁수의 머리를 관통한 제노바 화살을 보지 못했다. 궁수는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영국군은 약 12,0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궁수였다. 기사들은 궁수들의 양쪽 측면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약 1,800야드 길이의 정확한 V자 진형을 이루었다. 프랑스군은 36,000명이었다. 기사들이 15차례에 걸쳐 영국군의 화살 세례 속으로 돌격해 들어왔지만, 결국 전사자들과 쓰러져 가는 병사들 위로 엉켜 넘어졌다. 햇빛에 눈이 부시는 제노바 석궁병들의 질주와 미숙한 농민들의 광기 어린 비명 소리 속에서 프랑스군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국군의 화살은 마치 뿔뿔한 보리 줄기처럼 죽은 병사들과 동물들 사이에서 도드라져 보였다. 불과 10 시간 만에 높은 능선에서 쏟아진 영국군의 화살은 거의 50만 발에 달했고, 6천 명이 넘는 프랑스군과 제노바군이 전사했다. 분명 악마의 춤이었고, 정말 사악한 왈츠였다.

자정 무렵, 부상당한 필립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필립의 동맹이었던 두 왕이 이 끘찍한 학살에서 쓰러졌는데, 그 중 한 명은 눈먼 보헤미아의 안 왕이었다. 필립은 철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포로를 잡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의 아들인 웨일즈의 흑태자는 어둠을 틈타 움직여 긴 칼로 부상자들의 목을 베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 6,600명과 영국군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전투는 루시 파엘이 처음부터 너무나 깊이 관여했던 사건이었다. 모든 공로는 그녀의 것이었다. 에드워드와 필립 두 왕은 그녀의 훨씬 더 큰 계획 속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왕이었고, 두 어리석은 왕은 그녀 앞에서 광대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다.

전투 후 필립은 굴복했다. 아비뇽 추기경 두 명의 중재자 덕분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곧 휴전이 이루어졌다. 에드워드는 칼레를 계속 점령했고 필립은 초조해졌다. 영국은 프랑스에서 기사도를 없애버렸다.

전투의 규칙. 백병전, 정면 대결—한쪽과 다른 한쪽이 맞붙는 전투 한 사람의 기술과 힘, 용기가 다른 사람과 맞붙는 대결 방식은, 마치 적을 뒤에서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영국 장군은 기사 계급에 대한 모욕이었다. 프랑스 기사들은 장군을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에드워드 왕의 군대처럼 소규모 군대에게는 원거리 전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루시파엘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기사도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저물어갔다.

절망에 빠진 필립은 교황청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학식 있는 사제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뿐이었다. 재정 지원과 영국이 새로 개발한 무기, 즉 속사 장궁과 갑옷을 뚫는 송곳 화살에 맞설 확실한 대책이 필요했다. 영국이 사용하는 비겁한 전술에 맞설 새로운 전략도 필요했다. 그는 에드워드를 칼레에서 몰아내고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다시 쫓아낼 결정적인 반격 무기와 전략을 찾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파엘은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모든 왕좌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움직였다. 교황청의 왕좌와 아비뇰의 교황궁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황, 추기경단, 그리고 외경 추기경들까지 모두 그녀의 게임에서 똑같은 먹잇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의 닳을 놓았다.

샤토 루즈 ~ 아비뇰 시 ~ 1347년 4월

아비뇰의 샤토 루주는 몇몇 대학 카디널스 선수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 성의 뒷문에 배치된 경비병이 발을 움직였다. 왼쪽 발꿈치에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부츠를 뒤져봤지만 튀어나온 못이나 가시, 파편은 없었다. 하지만 다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작은 단검이 발꿈치를 찌르는 듯했다. 도저히 편히 쉬 수가 없었다. 그는 적막한 주변을 살폈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경비병은 자신의 초소 아치형 입구를 슬쩍 훑듯 보고는 성의 두꺼운 돌담을 둘러싼 덤불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그는 기대에 차 주머니를 더듬다가 조끼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는 씨익 웃었다. 벽에 기대어 부츠 끈을 풀고 종이를 안에 넣었다. 다시 끈을 묶으려던 순간, 후드를 쓴 인물의 긴 그림자가 그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당황해서 급히 몸을 바로잡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경비병. 당신은 근무지에 없소.”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죠?”

경비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치형 입구 쪽으로 다가갔고, 그림자 같은 형체도 그를 막으려 움직였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도사님."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수탉들이 동지에 자는 소리였습니다." 덤불 속에."

“아, 닭들이 헛대에 앉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더 밝은 곳에서 병사는 사제가 키가 크고 꽤 괜찮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장한 체격에 검은 머리가 덩수룩했다. 그는 마치 보도블록을 유심히 쳐다보는 듯했는데, 그때 그의 경비병의 검은 눈동자가 단검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끈도 풀린 부츠를 신고 닭 울음소리나 쫓아다니나?"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수도사님."

"아, 그렇군요. 신발끈이 풀린 걸 못 보셨나 보네요." 부드러운 목소리는 섬뜩한 모순을 자아냈다. 번뜩이는 눈빛에 경비병은 이를 악물었다. "경비병, 네 명령서를 보여줘." 지금 당장."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병사는 마지못해 몸을 굽혀 군화를 벗었다. 그는 임시로 만든 붓대를 풀어 서 신부에게 건넸다.

"끈 풀린 부츠 안에요? 아." 신부는 종이를 펼쳐 벽에 비치는 손전등 아래에 서서 읽었다. "경비병, 왜 명령서를 부츠 안에 넣어 두었습니까?"

경비병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신부는 비웃으며 접힌 성직록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의 명령은 짓밟힐 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군요. 이 고백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요?

"수도사님,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수도사님—음—" 경비병은 신부의 이름을 떠올리려 애썼다.

"세발레 대주교(루 세발레)가 장 프랑수아 블라시 추기경을 알현하기 위해 개인적인 약속으로 왔습니다."

"무장교관을 부르겠습니다. 그가 호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경비병이 돌아서려 하자, 사제는 그의 어깨를 아프게 움켜잡았다.

"명령서를 보니 이 자리에 새로 오신 것 같군." 큰 사제가 속삭였다. "흠집 나고 싶지 않은 신가 보군. 호위는 필요 없소. 여기는 여러 번 와 봤소. 알아서 찾아갈 테오도."

이제 막 입대한, 그것도 꽤 성급하게 입대한 신병이었던 그 병사는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찼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지만, 낯선 사람에게 맡겨두자. 호위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무유기였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와 번뜩이는 눈빛 속 명령에 복종하는 것 또한 그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방문객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

"제가 당신이 자리를 비운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있습니까?" 사제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제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있습니까? 경비병이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저 조용히 헛대에 앉은 수탉처럼 저를 모아주십시오. 늦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비병은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도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나쁜 짓이 아니다. 잘했다. 내가 그 호의를 세 배로 갚아주겠다." 사제는 경비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병사는 그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아치형 입구 아래로 사라져 조용한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 성. 사제는 모퉁이에 다다랐고, 그곳을 돌아가자 그의 얼굴과 옷차림은 그는 갑자기 변모하여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그는 예복 대신 다른 옷을 입었다. 그는 프랑스 기사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갑옷이 빛나고 있었다. 블라시 크로스. 그는 또 다른 모퉁이를 돌아 돌담 사이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다. 갑옷으로 무장한 그의 얼굴은 소리 없이 거대한 돌담에 녹아들었다.

장 프랑수아 블라시 추기경의 침실에서, 벽에 걸린 태피스트리가 기사의 형체가 단단한 돌벽 사이로 스쳐 지나갈 때 잠시 펠럭였다. 추기경은 금박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신음했고, 그의 눈동자는 눈꺼풀 아래에서 굴러가며 기사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악몽 같은 풍경 속으로. 장 프랑수아는 거대한 침대 위를 굴러다니며, 마치 빠르게 추락하는 꿈속에 갇힌 듯했다. 갑자기 그는 숨을 헐떡이며 벌떡 일어섰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악몽은 발각되자 방에서 도망쳤다. 추기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번쩍 떠졌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갑옷을 입은 기사의 어두운 실루엣이 서 있었다.

“누구냐?” 프랑수아는 목이 메어오는 공포에 질려 그것을 향해 쉿 소리를 냈다.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열린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자크,” 프랑수아는 목이 메어 말을 더듬었다. “자크, 너 맞아?” 그는 놀라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다, 장 프랑수아다. 잘 지냈나?” 기사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잘 지내시나요? 르네는요?”

“르네는 늘 그랬듯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가 결론 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프랑수아는 거짓말을 했다. “전혀 아니에요! 그에게 오라고 꼭 전해주세요. 자크, 꼭 전해주세요.”

“프랑수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러 왔소.” 기사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프랑스는 20년 안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에게 함락될 것이다. 에드워드는 많은 프랑스 귀족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는 서쪽과 북쪽에서 진격하여 부르고뉴의 심장부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는 프랑스를 분할할 것이다.”

당황한 추기경은 이렇게 대답했다. “프랑스의 귀족 대부분이 에드워드 편에 선다고 해도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기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쟁의 비밀을 에드워드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악마 자신입니다! 장 프랑수아, 당신이 그의 원정 전에, 혹은 지금 그를 막지 않는다면 에드워드는 우리의 조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프랑수아의 머릿속이 휘몰아쳤다. “말도 안 돼! 난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어. 만약 내가 그분께 말씀드린다면...”

"이런 신성함이 나를 미치게 만들겠소." 그가 옹기 말했다. "당신과 르네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프랑수아."

"자크, 나는 왕의 뜻을 막을 수 없네. 악마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나는 그저 "

"내 말 잘 들어, 프랑수아." 어둠 속의 형체는 분개하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외경 평의회 말이지, 자네는 알고 있나?"

추기경은 몸을 약간 굽혔다. 그는 마지못해 고백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겠습니까?"

"그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어. 영국 왕을 파멸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지. 프랑수아, 자네가 이 무기를 말아야 해. 그에게 맞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해.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네는..."

그 무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지식은 외경, 즉 일부 사람들이 나람신 번역본이라고 부르는 문헌에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너희는 이 무기의 설계와 작동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자료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프랑수아는 미심쩍은 듯 물었다. "기록 보관소는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습니다. 출입하려면 통행증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자크! 기록 보관소는 시의회 전용입니다."

"악마가 에드워드의 귀에 이 비밀을 속삭일 것이고, 에드워드는 나라마신 두루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그의 권력은 교황정보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프랑스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프랑수아,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 프랑스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네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당하고 명예롭게 쓰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러졌다.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쓰러져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프랑수아는 악몽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은요? 누가 쓰러져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타락하셨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소, 프랑수아." 기사는 돌아서서 떠났다.

"잠깐만요!" 프랑수아가 외쳤다.

기사는 뒤돌아서서 씩 웃었다. "당신은 프랑수아 드 프랑스군요. 부디 프랑스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구해 주십시오." 그는 돌아서서 벽 너머로 사라졌다.

"잠깐! 안 돼! 자크! 자크!" 프랑수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사라지는 그의 형체를 뒤쫓았다. 그는 아파트 방들을 가로질러 달려가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자크!" 하지만 긴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의 얼굴은 이미 복도를 가로질러 저쪽 벽을 넘어 신부의 면회실로 들어가 있었다. 그는 무릎 꿇고 "자크! 돌아와!" 하고 흐느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졸린 눈을 비빈 손님들이 문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잠자던 사제는 방 밖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몸을 뒤척였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침대 옆 등잔불이 그의 가슴 위에 엎드려 놓인 성경책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 위에 깎지 끼고 있었다. 기사는 침대 발치에 서서 꿈꾸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천천히 기사의 갑옷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변하기 시작하며, 죽음처럼 창백한, 윤기 나는 여인의 피부와 섞여 들어갔다. 그녀의 눈, 손톱, 그리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거친 머리카락은 모두 흑단처럼 검었다. 그녀는 순수하고 부끄러움 없는 이브의 화신이었고, 모든 여성이 타락한 근원 이자 모든 남성이 실패한 근원이었다. 그녀는 루시파엘이었다. 그녀는 사제 위로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창백한 입에서 수많은 여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아까운 일이지. 특히 내 밑에 있는 건 더더욱.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사제는 꿈속에서 신음하며 얼굴을 찡그리더니 옆으로 몸을 굴렀다. 펼쳐져 있던 성경책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맨발굽이 그것을 짓밟으며 성의 외벽을 뚫고 나갔다. 그 자리에는 불경스러운 웃음소리의 유령만이 남아 성직자의 꿈을 괴롭혔다.

루시파엘이 웃을 만도 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사악한 씨앗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샤토 말로우 ~ 아비뇽 시 ~ 1347년 5월

추기경단 소유였던 샤토 루즈와는 달리, 아비뇽의 샤토 말로는 외경 위원회 소유였으며 바실리스트 추기경과 린 추기경의 거주지였습니다. 린 추기경이 교황의 사절로 영국에 가 있는 동안, 바실리스트 추기경은 샤토 말로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바실리스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거의 꺼져가는 기름등잔이 간신히 불꽃을 내며 근처에 놓인 깃펜과 잉크병, 그리고 편지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카디널 린 ~

용기가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내 영혼이여. 이제 나는 자비에르 추기경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간청하건대, 당장 아비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클레멘트 교황 성하를 알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분께 위험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친구. 저는 제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성하를 섬기는 마음으로, ~ 바실리스테 추기경 드림

매서운 바람이 불길을 꺼뜨렸고, 뒷창문이 살며시 열리자 움직이는 그림자가 드러났다. 탈주한 경비병이 바실리스테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추기경의 입을 세계 손으로 막았다. 그런 다음 단검을 뽑아 들고 지시받은 질문들을 속삭였다. 바실리스테는 저항했지만, 건장한 병사에게는 너무 허약했다. 침입자는 섬뜩한 속삭임으로 그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경고했고,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며 위협을 분명히 했다. 병사는 손을 떼고 대답을 기다렸다.

바실리스트는 반항심에 가득 차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얼굴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칼날은 천천히 추기경의 왼쪽 눈을 향해 움직였고, 얇은 핏자국을 남겼다. 바실리스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손이 다시 그의 입을 막고 머리를 베개에 깊숙이 파묻었다. 경비병은 바실리스테의 가슴을 자신의 무게로 누르며 눈 아래 여린 살점에 단검을 꽂아 넣었다. 칼날이 눈구멍 벽을 긁어대는 소리에 바실리스테는 코로 비명을 질렀다. 경비병은 그의 눈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노인은 이제 저항할 힘이 조금 빠졌다고 병사가 알려주었다. 협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눈이 아직 하나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바실리스트는 곧바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이 끝나자 경비병은 암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흐느끼며 진실을 말했다고 맹세했지만, 칼은 추기경의 오른쪽 눈에 박혔다. 바실리스테는 다시 한번 차가운 손에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말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었다. 그 말들은 똑같았다. 자신이 고용된 목적대로 정보를 얻어냈다고 확신한 경비병은 바실리스테의 가슴 위로 몸을 옮겨 그의 폐에서 공기를 빼냈다. 추기경이 침묵에 잠기자, 암살자는 창틀을 넘어 고요한 저녁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그는 끔찍한 사건 이후 미리 정해둔 비밀 장소에서 후원자를 만났다. 가족 지갑이 오고 갔고, 고용된 킬러는 아비뇽 서쪽 문을 나서 론 강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그가 채 1마일도 가지 못했을 때, 미리 정보를 알고 기다리고 있던 도적이 넓은 칼을 휘두르며 그의 목과 지갑을 가져갔다. 끔찍한 살인의 증거는 프랑스 시골 풍경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살인의 가해자인 장 프랑수아 블라시 추기경은 이제 외경 공의회 비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격하게 경비되는 두 수도원, 가르디앵 수도원과 칸첼로 수도원의 비밀을 손에 넣게 되었다.

[2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